

# 인터넷 텔레포니(VoIP) 포럼창립, 본격 활동개시

강신각 : TTA 정보화기술위원회(TC07) 위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기획연구팀 책임연구원  
인터넷 텔레포니 포럼 부의장

## 1. 배경

인터넷 이용자수의 급격한 증가와 인터넷서비스 보급의 대중화에 따라 인터넷에서 최고의 미래가치를 갖는 기술로 인터넷 텔레포니(VoIP : Voice over IP)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 텔레포니 기술은 인터넷 망 계층 프로토콜인 IP(Internet Protocol) 상에서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음성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을 말한다.

VoIP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인터넷 망을 그대로 이용하여 음성 전화 서비스를 통합, 구현함으로써 전화나 팩스송신에 소요되던 회선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최근, 기업 및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새롭기술이 국내외에서 VoIP 기술을 적용한 무료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터넷 텔레포니 기술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인터넷 텔레포니 기술은 인터넷전화 서비스 외에도 인터넷 팩스, 웹콜 센터, 통합 메세징 서비스 등의 각종 부가서비스 뿐만 아니라 영상회의, 전자상거래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핵심 기반기술이라는 점에서 통신사업자, 산업체 및 이용자들의 관심이 매우 큰 기술이다.

관련 시장동향을 살펴보면 전 세계 인터넷전

화 서비스 시장규모는 1999년 6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35배에 해당하는 2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의 인터넷전화 통화시간은 지난 '98년에 약 4억분에 해당하던 것이 '99년에는 약 25억분으로 6배 이상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40억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인터넷전화 이용자 수를 살펴 보면, 1999년에 1600만 명에 이르며, 매년 100%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여 200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대중화 되어 2005년 경에는 국제 및 장거리전화 시장의 약 20%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인터넷전화 시장규모는 1998년 182억원에서 2001년에는 2,09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2조 4천억원 규모의 전체 전화 시장에서 약 10~2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인터넷전화 및 관련 서비스 시장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국내 관련산업의 육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VoIP 기술에 대한 국내 산학연 관련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표준화 활동의 활성화가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실표준화 활동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중심점이 되어 산학연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가운데 국내 인터넷텔레포니포럼이 창립되게 되었으며 본격 활동에 착수하게 되었다.

## 2. 포럼 창립 추진경과

금년 초에 정보통신부에서는 주요 정보통신 전략분야에 대한 국내표준화 활동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보통신 표준화 포럼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월 말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 전략분야 표준화 포럼구성 및 운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인터넷텔레포니포럼 구성을 제안하였으며, “인터넷텔레포니포럼 구성, 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통신사업자, ISP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산업체, 연구기관, 학계의 관련기관과 협의를 추진하였다. 관련 기관 협의결과로 산·학·연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고 정통부가 지원하는 “포럼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포럼 창립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3월 21일에 정통부가 발표한 11개 전략 표준화 포럼으로 선정되었다. 포럼 창립준비위원회의 활동결과로 지난 4월 7일 COEX에서 인터넷텔레포니(VoIP)포럼이 공식 창립총회를 거쳐 출범하였으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포럼 창립의 세부 추진경과를 주요 일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2000. 1 : 사실표준화 활동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정보통신부)
- 2000. 1. 31 : 인터넷 등 7개 정보통신 전략분야 포럼활동 지원계획 언론 발표(정보통신부)
- 2000. 2초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인터넷텔레포니(VoIP : Voice over IP)포럼 창립의 필요성 제안 및 포럼 창립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마련
- 2000. 2. 18 : 포럼 창립의 필요성에 대한 각계의 의견조치를 위한 관련기관 회의 개최(정보통신부)
  - 산·학·연의 12개 관련기관이 참석하여 포럼 창립 필요성 강조
- 2000. 2~3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인터넷텔레포니(VoIP)포럼 구성·운영 기본

계획(안)” 수립

- 2000. 3. 13 : 인터넷텔레포니포럼 창립 준비회의 개최(정보통신부)
  - 산·학·연의 28개 기관에서 참여하여 포럼 운영규정(안) 검토
  - “포럼 창립준비위원회” 구성
  - 포럼 기본골격 확정 및 포럼 창립작업을 준비위에 위임
  - 제1차 포럼 창립준비위 회의 개최
- 2000. 3 : 준비위에서 포럼 창립행사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활동
  - 준비위 메일링 리스트를 통한 창립행사 준비활동 수행
- 2000. 3. 24 : 제2차 포럼 창립준비위원회 회의 개최
- 2000. 4. 3 : 제3차 포럼 창립준비위원회 회의 개최
- 2000. 4. 6 : 제4차 포럼 창립준비위원회 회의 개최
- 2000. 4. 7 : 포럼 창립총회 및 기술세미나 개최

## 3. 포럼 창립행사 개최결과

포럼 창립행사는 창립총회와 기술세미나를 병행하여 개최되었으며 산·학·연 관련기관으로부터 약 5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창립행사는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인터넷텔레포니포럼 창립준비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되었으며, 로커스, 브리지텍, 비트로테크 놀로지, 삼성전자, SK텔링크, 오성정보통신, LG 정보통신, 인츠, 웹콜월드, 코스모브리지, 매일경제신문사, 전자신문이 후원하였다.

창립총회에서는 운영규정이 승인되었고, 포럼 의장으로 이상훈 본부장(한국통신 연구개발본부)이, 부의장으로 강신각 책임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그리고 포럼 운영전반을 이끌어 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

고, 산·학·연·관 관련기관의 전문가 14인이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창립총회에서는 63개 기관이 포럼에 기관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보고되었다.

포럼 창립을 기념하여 개최된 기술세미나에서는 산·학·연 전문가가 아래와 같은 7편의 주제발표를 하여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 Voice over Packet 망 기술(김두석 박사, KT)
- VoIP를 위한 H.323 기술(김두현 팀장, ETRI)
- 인터넷 전화망 테스트베드 구축 및 활용방안(이병희 선연, KT)
- H.323/MGCP 기반 게이트웨이 기술(조원상 부장, 삼성전자)
- 기업통신망에서의 VoIP 기술(강태익 실장, LG 정보통신)
- 인터넷 텔레포니 통합기술(김원순 상무, 로커스)
- 향후 VoIP 시장전개 방향과 기술전망(최찬규 대표, 코스모브리지)

#### 4. 포럼 일반사항

##### 1) 포럼의 목적

인터넷텔레포니포럼은 인터넷전화와 인터넷팩스 등을 포함하는 인터넷기반 음성서비스 관련 표준기술 정보제공, 국제 관련 포럼에의 공동대응, 국내 표준규격 개발 및 국내 산업체의 사실표준화 활동, 제품간 상호운용성 시험 활동, 인터넷전화 시장창출 및 활성화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 2) 포럼의 주요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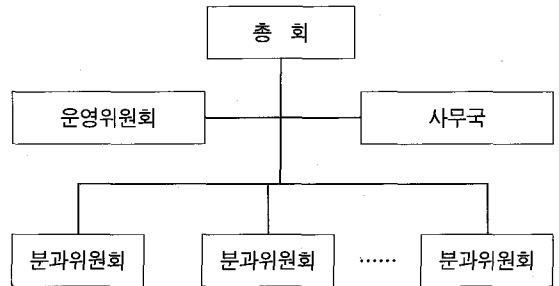
포럼은 상기 포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VoIP 관련 기술동향 파악 및 분석
- VoIP 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 각종 행사 개최
- VoIP 관련 국내표준 규격연구 및 개발
- VoIP 제품 상호운용성 시험
- VoIP 관련 국제표준화 회의, 포럼 등의 참여 및 공동대응
- 기타 포럼의 목적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3) 포럼의 조직

포럼은 총회와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그리고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그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1) 포럼 조직도

총회는 포럼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당해년도 사업수행 결과와 차기년도 사업계획의 심의 및 의결, 포럼표준 및 관련 기술문서의 제정, 의장과 감사의 선출,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의결권한을 갖는다.

운영위원회는 포럼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과 총회의 위임사항을 다룬다.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과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운영위원은 포럼 부의장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선출직 운영위원은 산업체, 통신망사업자, 서비스사업자, 연구계 및 학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분과위원회는 각 기술분야 또는 사업분야에 대한 포럼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세부 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작업반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사무국은 포럼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제반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4) 포럼 회원

포럼 회원은 기관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되며, 개인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된다. 포럼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기관장 명의의 “포럼 기관회원 가입신청서”를 포럼 사무국에 제출하고 운영규정에 명시된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기관회원이 될 수 있다.

기관회원에 속한 자가 포럼활동에 참여하고자 “포럼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할 경우 정회원이 된다. 정회원은 포럼의 모든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회원기관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포럼활동에 참여하고자 “포럼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할 경우 준회원이 되나, 준회원은 운영규정에 명시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5. 포럼 현황 및 향후 활동방향

포럼 창립총회 당시 가입 기관회원 수가 63개이었으나 창립이후 계속해서 가입회원 수가 늘어 현재 100여 기관이 포럼의 기관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대부분 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

고 있다. 이는 인터넷 텔레포니 기술에 대한 산업체의 관심과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 하겠다.

따라서 포럼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체, 통신사업자 등 포럼 회원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포럼 활동방향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먼저 산업체의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와, 포럼이 입수하게 되는 각종 기술정보를 저작권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회원에게 배포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창립 기술세미나 자료를 포럼 홈 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추후 계속해서 관련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회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포럼 홈 페이지를 통해 회원간의 원활한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포럼 웹 서버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 및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관회원 대표자 간담회 개최 추진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회원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기술분야에 대한 토론의 장 마련 및 관련 표준초안 개발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포럼 세부조직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포럼 세부조직의 구성 및 운영은 회원들의 의견수렴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포럼 운영위원회는 포럼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산·학·연 각 관련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국내 인터넷 텔레포니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표준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끝으로 포럼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포럼 홈 페이지(<http://www.voip-forum.or.kr>)를 방문하여 회원가입 안내 등 세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